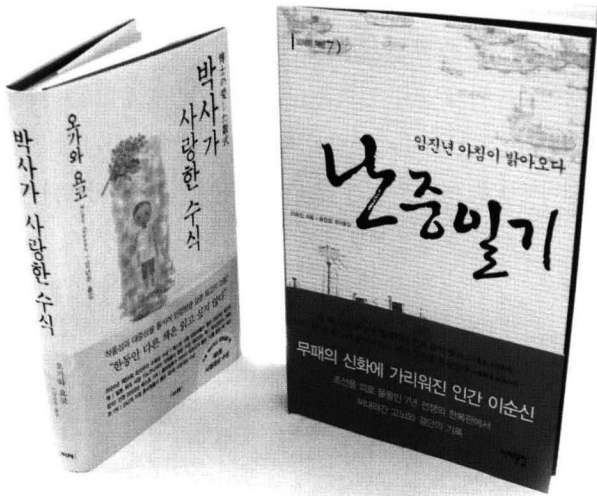


# 고독한 사람들의 기록, 〈난중일기〉와 〈박사가 사랑한 수식〉



《박사가 사랑한 수식》 오가와 요코지음 | 김난주 옮김 | 이레 | 264쪽 | 값 9,000원  
 《난중일기》 이순신 지음 | 송찬섭 엮음 | 서해문집 | 424쪽 | 값 11,700원

은 핸드폰을 쥐고 있어야 편안함을 느낀다. 꼭 뒤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보고 만진다. 시계 대신 핸드폰 시계를 보고, 거울 대신 핸드폰 액정 화면에 얼굴을 비춘다.

그래서 핸드폰을 뺏기는 건, 아이들에겐 두려움이다. 각각각색의 이유로 돌려달라고 아우성이다. “핸드폰에 시험 범위 찍어 저장해 놔어요”, “친구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번호를 몰라요”, “아침에 핸드폰 알람이 필요해요” 그럴 때면, 아이들이 연락해진 건지 내가 강짜를 부리는 건지 헷갈린다. 석민이는 눈물까지 비춘다. 그럼에도 나는 단호해지려 한다. “일주일 후에 와.”

## 단순한 일상이 주는 감동을 느껴보렴! 《박사가 사랑한 수식》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하다. 수업 집중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무언가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건, 그만큼 머리 속에 잡념이 있다는 것이다. 몸에 지방이 끼면 몸이 무겁듯, 생각에 잡념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게 된다. 잡념이 없으면 사람은 풍요로워진다. 마치 《박사가 사랑한 수식數式》 속의 박사처럼 말이다.

제목 그대로, 이 책은 수학 박사가 주인공이다. 그는 천재다. 그러나 한 순간의 교통사고로 이젠 단지 80분간의 기억밖에 할 수 없다. 그의 양복 이곳저곳에는 “난 80분 만을 기억할 수 있다”는 메모지가 너털너털 붙어 있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가정부로 스물여덟의 미혼모가 온다. 열 살짜리 아들과 함께. 여전히 80분의 기억 안에 갇혀 있는 박사. 그러나 그는 기억에 집착하지 않는다. 대신 수학의 세계에 빠져 있다. 수학은 박사가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다. 머리가 평평하다고 불만인 가정부의 아들에게 박사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한다.

“너는 루트다. 어떤 숫자든 꺼리지 않고 자기 안에 보듬는 실로 관대한 기호, 루트야.”

가정부에게 묻는다. “자네의 신발 사이즈가 얼마

조주희 | 대광고등학교 교사

우리는 좀 고독해져야 한다. 고독은 참된 자신과의 만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고독하지 않다. 24시간 번잡하게 산다. 그래서 가끔씩 주어지는 고독할 시간에도 우리는 불안해한다.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 인터넷을 켜다. TV를 켜다. 무소음, 무위를 견디지 못하는 건, 참말 생각해 봐야 한다.

석민이가 핸드폰을 뺏겼다. 수업 시간에 사용해서다. 배터리를 빼고 압수했다. 이렇게 압수한 핸드폰은 정확히 일주일 후에 받을 수 있다. 한 시간이 지나자마자 석민이가 얼굴이 하얗게 되어 찾아왔다.

“선생님. 핸드폰이 없으니 불안해요. 아까 한 시간도 계속 불안했어요. 이렇겐 기말 시험을 볼 수 없어요.”

석민이는 진심이었다. 모르는 바 아니다. 요새 아이들

나 되나? 24? 정말 청결한 숫자군. 4의 계승이야.”

많은 기억을 가진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평생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두 모자는 박사를 사랑한다. 박사도 자신의 80분의 기억으로 그 둘을 사랑한다. 그래서 결말은 더욱 애잔하게 다가온다.

수업시간에 책 이야기를 꺼내봤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조금은 고독해지고 싶을 것이다.” 빌려달라는 아이들은 많았다. 그렇게 빌려준 채, 한 달 가까이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 다. 아이들의 책 읽는 속도는 너무 더디다. 이걸 고독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시간과 소리와 공간이 없는 한, 책 읽기는 난제難題가 된다.

일주일이 지나자 칼 같이 아이들이 찾아왔다. 핸드폰을 찾아가는 얼굴에선 안도감이 지나간다. 또다시 아이들은 바빠질 것이다. 손가락과 눈동자의 분주함 속에서 평안함을 느낄 것이다. 가끔씩 그것이 정말 안타깝다.

### 이순신, 고독 속에 태어난 《난중일기》

고독하면 글이 나온다. 그래서 그 속에는 참 자신이 드러난다. 지나간 일기를 읽을 때 부끄러운 건 이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글쓰기를 시켜봤다. 원고지 30매 정도의 소설을 써오라 했다. 못 하겠다고 손사래를 치는 아이도 있었고, 여러 편을 가지고와 나를 놀라게 한 아이도 많았다. 내용은 백인 백색百人百色이었다. 자장면 집 재료들을 의인화하여 소설을 쓴 작품도 있었고, 세상에 남자가 자신밖에 남지 않았을 때의 내용을 그린 작품도 있었다. 그 와중에 한준이가 찾아왔다. 이런 걸 글로 써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내용을 듣고 나는 꽤 착잡해졌다.

“제가요, 중학교 때요, 기말시험을 보는데요, 진짜 잘 보려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어떤 선생님이 저를 끌고 가셔서 혼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물어봐도 ‘너 알잖아.’ 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정말 몰랐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가도록 매일 불려갔어요. 시험은 망쳤죠. 알고 봤더니 도서관에서 도난 사고가 났는데 저로 알고 혼내신 거예요. 나중에 범인이 밝혀지니까 그 때 서야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한준이는 씩씩이 글을 썼다. 다 쓰고 나니 편해졌다는 표정이다. 이럴 땐 교사인 내가 한준이에게 배우게 된다. 조용하게 자신과 만나고 나면 아픔도 슬픔도 치유가 된다.

그래서 용장勇將 이순신의 《난중일기》는 강하지 않다. 오히려 너무 빈약하다.

“1593년 5월 18일 조금 있다가 설사를 하고 나

니 편안해진 듯했다.”

“1594년 초 8일 맑다. 병세에 별 차도가 없고 기운은 더 축나서 하루 내내 끙끙거렸다.” 게다가 굉장한 감수성을 지녔다.

“7월 19일 저녁에 광양 현감이 진주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명부를 보내왔다. 보고 있노라니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남을 싫어하기도 한다.

“8월 26일 원균이 술을 마시자고 하여 조금 주었더니, 잔뜩 취하여 흥측한 말을 마구 지껄었다. 매우 해괴하였다.”

이순신은 죽기 이틀 전까지 일기를 썼다. 화살이 빗발치고 아들이 죽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큰 아픔 속에서도 이순신은 붓을 잡았다. 꿈이 흥흥해서 걱정된다고도 썼고, 아들의 건강을 점치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도 썼다. 그래서 앞날을 짐작 못한 마지막 일기를 읽노라면 저절로 엄숙해진다. 이순신은 약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았기에 이순신은 강할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이라고 편안하기만 할까. 억울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부지기수다. 참기만 해서도 안 되지만 분하다고 자신을 버려서도 안 된다. 새해 벽두다. 2005년도 다사다난 할 것이다.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을 것이다. 그럴 때, 고독해지자. 글을 쓰자. 그렇게 사람은 자랄 수 있다. **한준**



● 이 글을 쓴 조주희 선생님은 현재 대광고등학교 국어교사이며 문학반을 담당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고, 대학교와 대학원 시절 CBS 다큐멘터리 작가, 리포터, <여성동아> 자유기고가로 활동한 바 있다.